

考古美術 卅一

◎ 文化財委員會全體會議

六月二十五日 上午一〇時 景福宮慶會樓에서 鄭文基 任哲宰 李弘植 등 各分科委員 一九名 參席에 金岸基 委員長 司會로 文化財委員會全體會議가 開催되었다. 附議案件은 政府의 文化行政 一元化 計劃에 따라 文化財管理局과 國立博物館을 現體制대로 公報部로 移管토록 措置한데 대하여 現 文化財管理局을 文化財管理廳으로 昇格하고 그 산하에 國立博物館과 國樂院을 두는 것이 보다 더 文化行政 一元化의 效率을 거둘 수 있는 方案으로 判斷, 文化財委員會로서 의 建議書를 國會議 政府要路에 提出하기로 可決하였다.

建議書 起草委員會는 委員長이 指名하도록 一任되었다.

◎ 文化財調查審議會

文化財委員會는 지난 八、九、一〇 三日間 文化財調查審議會를 열어 三陽洞金銅觀音菩薩立像 등 國寶四點, 寶物三三點, 史蹟四點을 指定하였는데 그名稱은 다음과 같다.

國寶

△ 三陽洞金銅觀音菩薩立像 △ 金銅觀音菩薩立像(車明浩 所藏) △ 金銅菩薩立像(車明浩 소장) △ 善山竹林洞五層石塔

寶物

△ 甲寺梵鐘 △ 洛山寺銅鐘 △ 安養社壬子銘飯子 △ 靈岩寺址龜趺二座 △ 寶泉寺址浮屠 △ 華川啓星里石燈 △ 法界寺三層石塔 △ 碧松寺三層石塔 △ 通度寺(奉鉢塔) △ 永川新月洞三層石塔(要後補物除去) △ 萬魚寺三層石塔 △ 表忠寺三層石塔 △ 密陽崇眞里三層石塔 △ 洛山寺七層石塔 △ 善山洛山洞三層石塔 △ 桃李寺石塔 △ 舞鳳寺石佛座像 △ 善山海平洞石造如來座像 △ 密陽內洞石佛座像 △ 金烏山磨崖菩薩立像 △ 銀海寺百興庵極樂殿內須彌壇 △ 雙溪寺大雄殿 △ 金山寺大寂光殿 △ 安東蘇湖軒 △ 安東臨清閣(이미 指定된 臨清閣內容에 正寢追加) △ 七

辰寺慧昭國師碑 △ 海南尹氏家傳古畫(恭齋自畫像 1, 家傳遺墨四點, 尹氏家寶帖 一, 松下處士圖一) △ 藥圃影幀 △ 藥圃遺稿 및 古文書 △ 大成至聖文宣王殿座圖 △ 栗谷先生男妹分財記 △ 至正十四年奴婢文卷 △ 尹孤山手蹟 및 關係古文書 △ 雙溪寺墨寂堂指定解除

史蹟

△ 高靈古衙洞壁畫古墳 △ 晉州平居洞高麗古墳群 △ 武成書院 △ 海南尹氏古宅綠雨堂

◎ 瑞山 海美面 休岩里 先史住居址發掘

國立博物館考古課에서는 지난 五月三〇일부터 六月十二일까지 瑞山에서 先史住居址를 發掘하였는데 이 때까지 남한지역에서 出土되지 않았던 玉製品, 土器 등 初期金石期遺物이 出土되었다.

參加者: 尹武炳 學藝官, 金正基 考古課長, 韓炳三, 정영화氏 등.

◎ 韓國民俗工藝展

七月六일부터 七月十二일까지 一週日間 新聞會館下層에서 韓國民俗工藝展이 東亞日報社 主權로 열렸다. 藏, 탁자, 文匣, 白磁, 靑磁, 漆, 반다지, 書函, 卓반, 等 주로 李朝時代 民俗工藝品, 약 二〇〇點이 展示되었다. 出品者는 各博物館, 個人所藏家 들이다.

慶州 傳皇福寺址의 諸問題

黃 壽 永

第九卷 第八號 通卷九十七號

경주시 東方에 南北으로 긴 小丘를 이루는 狼山은 新羅의 歷史와 文化와 信仰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文獻에 보이는 狼山의 神聖視하는 記事(三國史記 卷三 實聖王十二年條)에서 뿐 아니라 南



도羅銘 平定(1664) 敬(高)

北兩嶺을 이루는 누에 고치 모양의 이小山과 그 周邊에 자리잡은 宮闕 王陵 寺院 등 重要遺蹟이 모두 이 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狼山을 신라三山의 하나로서 大祀를 받들었던 聖山

으로 추정하고 혹은 경주의 鎮山이라 전하여 온 까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物心兩面에서의 중요한 존재가치도 아직 우리의 學的 注目の 對象을 삼은 일이 없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앞으로 三年간 신라三山조사가 먼저 이곳을 주목한 것은 마땅하였다.

二

그런데 이 狼山에서 가장 중요한 佛敎遺蹟은 그 南北端에 자리잡은 四天王寺址와 皇福寺址라고 전칭되어 오던 地點이다. 모두가 佛刹의 遺址인바 前者는 文獻에서 建立의 年연과 年代를 밝힐 수가 있으며 그 殿塔의 中心部만은 史蹟으로 保護되어 왔다. 그리하여 文武大王에 의한 鎮護國家의 聖慮에서 定礎된 사실이나 明朗法師에 의한 文豆婁 秘密修法의 사실도 알 수가 있다. 이에 비하면 傳 皇福寺址에 대하여서는 三國史記에 오직 景明王을 黃福寺北에서 장사지낸 記事만이 보일 뿐이다. 그러나 三國遺事 卷四 義湘傳敎에는 「年二十九 依京師皇福寺落髮」이라 있어 法師의 出生을 眞平王 四十七年(六二五)으로 잡아 이 때는 眞德女王七年(六五三)에 해당하므로써 三國末에는 이미 皇福寺가 있었던 사실을 전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곳 傳 皇福寺址에는 신라 一般型 三層石塔 一基만이 地表에 남아 있어서 일찍부터 注目되었으며 더우기 一九四二年 重修時 純金佛二軀를 비롯한 찬란한 舍利具가 發見되었으며 金銅函蓋의 記銘에 의하

여 神文 등 신라 皇室의 冥福을 위하여 七世紀末에 建立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伽藍을 神文王과 관련시켜 그 年代를 신라統初로 추정하는 論議①도 있었다. 그러나 上記 石塔 記銘 중에 「宗祖聖靈禪院伽藍建立三層石塔」이라고 한 것은 既存하는 寺院內에 石塔이 세워진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②. 이 같은 사실은 또한 上引한 遺事의 記事와도 관련되어서 初創年代의 溯上함을 짐작케 하였다. 塔銘에도 寺名이나 그 初創年代가 明記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날 國寶名稱을 「慶州九黃里三層石塔」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寺名의 推定은 아직 도 최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겠으며 다만 「황복」이라는 小地名 또는 기왕에 발견된 瓦銘 중에 「皇福」(東亞大 소장) 또는 「王福」(東國大 소장)이라 있어 皇福寺로서의 呼稱이 그대로 行하여지고 있을 따름이다. 다음에 이와 같은 寺名과 倉建年代에 관한 논의를 떠나서 이 寺址가 注目된 또 하나의 契機는 이곳 石塔直下에 埋沒된 十二支神像石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十二支神像은 신라 王陵護石으로서의 注目이 위주였던 바 이와 같이 佛寺建物에 배치되어 있는 遺例는 오직 이곳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 配置의 眞相이 究明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에 주목한 많은 人士들의 一致된 期待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이른바 이 「十二支金堂址」뿐 아니라 나아가 신라에서 유독 發達相을 보인 十二支神像 彫刻의 發生 및 그 系譜의 作成을 이곳에서 期待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三

이와 같이 石塔과 十二支神像의 둘만 이 기왕에 주목을 받아 왔으며 기왕의 論議는 이 範圍를 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외에 또 하



皇福寺碑片 (1968年5月出土)

나의 建築物가 東方平地에 있어서 오늘 모두 田畝으로 변하였으니 基壇石으로 보이는 石片만이 그 위에 散亂되고 있다. 지난 五月의 첫조사가 上記 十二支 金堂址를 中心삼기는 하였으나 그 期間을 통하여 자주 現地에서 논의된 것은 도리어 이 遺址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三國遺事에 보이는 義湘法師의 履空旋塔의 記事와의 관련에서인대 法師가 皇福寺에 住利할 때 徒衆과 더불어 虛空을 밟고 繞塔하였다는 그 塔에 관한 문제이다. 이 記事는 法師 자신이 「世人見此 必以爲怪 不可以訓世」라고 말하였다는 것과 같이 곧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寺址에서 現存하는 後建된 石塔이 아닌 아마도 高裕燮先生^③이 추정한 바와 같은 木塔의 存在를 따로 推定하여야 마땅하다는 생각에서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傳皇福寺 初創當時의 主要한 堂塔伽藍을 이곳에서 따로 推定하여야겠다는 것이다. 現存 石塔을 義湘의 繞塔記事와 관련시켜 考察하려는 것은(梅原末治博士^④는 部落民이 오늘 이 石塔을 春秋로 도는 風習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비록 法師가 이 때까지 高齡으로 存命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正當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의 一次조사를 통하여 뚜렷한 結論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새로운 考察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1) 現存石塔은 이 寺院의 初創과는 直接關係가 없는 신라統一即後의 新羅皇室의 願塔인데 山麓에 偏在하는 그 占定位置에서도 그러하다.
(2) 十二支神像 八軀의 配置는 이 建築物에서 밝혀진 歷代重建에 따르는 變形을 보이나 그 造成年代는 신라統初로 推定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신라十二支彫像의 發生이 陵墓護石에 앞서서 또는 거의 同代에 佛教伽藍에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推定케 하였다.
(3) 既往의 注目은 地表의 오직 塔像에만 局限되었으나 이 寺院의 中心은 도리어 그 東方遺址에서 찾아야 하겠다. 그를 위한 今後의 조사는 이 寺院의 創建年代와 伽藍配置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解明을 期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의 寺域實測에서는 周圍의 王陵과의 관계도 새로운 注目を 받았다.
(4) 今次 조사된 十二支像所在 建築物는 數次의 重建사실을 보여 주었

으며 下層에서는 三國期瓦類의 出土가 있어 그 初創年代의 溯及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三層石塔 直北에서 새로운 建築物의 存在가 밝혀진 것은 調査者에게도 豫定外의 새로운 사실로서 주목되었다.
(5) 十二支建築物 南方道路邊에 東西로 埋沒되었던 龜趺二座의 發掘과 兩龜趺間과 民家에서 收拾된 若干의 碑片은 既往에 收拾된 碑片(慶州博物館所藏)과 一致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조사에서 더 많은 兩碑의 碑片과 이 寺址와의 關係가 究明되어야 할 것이다.

註

- ① 大坂金太郎·掛陵考(朝鮮學報)39、40輯 一九六六年 四月
- ② 이 같은 見解는 일찌기 다음 兩氏에 의하여 表明된 바 있다.
高裕燮·朝鮮塔婆의 樣式變遷(東方學志) 一輯)
李弘植·慶州狼山東麓三層石塔內發見品(韓國古文化論叢)所收
이 論文 末尾에는 「所謂 皇福寺問題」라는 一章이 있어 이 寺址에 대한 여러 見解와 出土遺物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바 皇福寺로서의 推定은 保留되고 있다.
- ③ 高裕燮·上揭 論文
- ④ 梅原末治·韓國慶州皇福寺塔發見의 舍利容器(美術研究) 一五六號 一九五〇年)

堤川發見 乙巳銘銅鍾

崔 淳 雨

一九六六年 六月二十四日 忠北 堤川郡 堤川邑 남천동 六四番地 白富榮氏로부터 國立博物館에 提出된 在銘高麗銅鍾의 新例를 概說해 두고자 한다. 發見者 白富榮氏의 말에 따르면 이 銅鍾은 六、七年前에 堤川地區山野에서 標本用鳥類를 採集中 發見된 것이라고 하고 이 鍾의 保存상태로 보아서 그 말의 信實性은 희박한 것으로 짐작되었다. 따라서 出土地와 出土日時는 분명히 알 수 없으며 다만 堤川地區에서 오래지 않은 過